



Education First



EF EPI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www.ef.com/epi

목차

개요	5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세계 지도	6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추세 지도	8
EF EPI 제3판 머리말	11
국가별 집중분석	
한국	12
EF EPI 상관관계	14
영어와 경제 발전	16
영어로 비즈니스하기	18
영어와 삶의 질	19
결론	21
EF EPI 에 대해서	22
부록: EF EPI 국가별 순위	24
참조	26
Reviews of the EF EPI	27

개요

해가 거듭될수록 경제는 보다 더 세계화되고, 업무는 여러 장소로 분산되어 이루어지며, 정보는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의사소통이 더 이상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날, 공용어는 필수 도구가 되었다. 그 도구는 바로 영어이며,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기관에서는 필수 도구인 영어를 점점 더 많이 가르치고 있다. 많은 학교 시스템이 수학이나 과학처럼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가르치고 있다. 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어로 강의를 진행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 및 국내 기업에서도 영어를 회사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 구직자, 교육에 열성인 학부모를 비롯하여 수많은 개인들이 영어 사교육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동기부여 요인과 영어교육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경제 성장 및 경쟁력 증가 같은 형태로 투자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을까? EF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EF EPI)를 만들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국 성인들의 영어실력을 조사, 평가해 국가별 영어 실력을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지난 6년 동안 (2007-2012) EF는 세계 각국의 성인 50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어능력을 평가해 올해 발간되는 EF EPI 제3판에 담았다. 제3판에는 해당 기간 동안 나타난 각국의 영어능력 변화 추세뿐 아니라 국가별 최신 순위도 수록되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일부 아시아 국가,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는 지난 6년간 영어능력이 대폭 향상되었다. 중국 역시 급격한 수준은 아니지만, 영어능력이 향상되었다. 일본과 한국은 엄청난 영어 사교육 투자에도 불구하고, 영어능력이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BRIC 국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영어실력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올해는 인도와 러시아가 중국을 앞질렀으며, 브라질이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이미 뛰어난 영어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꾸준히 향상되어 가는 반면, 프랑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가장 영어능력이 뛰어난 최상위 7개국 모두 유럽의 소규모 국가들인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제적 시각을 적극 수용해야만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는 영어가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이러한 석유 부국들은 석유 생산이 정점에 이르기 전에 지식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뛰어난 영어능력 없이는 지식경제로 전환될 수 없다.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영어능력이 낮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예외적으로 영어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 터키는 지난 6년 동안 영어 실력이 가장 많이 향상된 국가이다. 다수의 경제지표 역시 호조를 나타내고 있어 이 긍정적인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우, 영어능력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이 새로운 능력은 두 국가가 열망하는 지식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 취약한 영어능력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경쟁력이 낮은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 지역 절반 이상 국가의 EF EPI 점수가 하위권에 머물렀다.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칠레는 영어능력이 향상되었음에도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글로벌화된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멕시코와 과테말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영어실력이 하락하였다.

EF EPI 제3판에서는 성인의 영어능력을 비교하여 60개 국가 및 자치령의 순위를 매겼다.



제3판

2013년 EF EPI (영어능력 지수)

우수

랭킹	국가	EF EPI
1	스웨덴	68.69
2	노르웨이	66.60
3	네덜란드	66.19
4	에스토니아	65.55
5	덴마크	65.15
6	오스트리아	62.66
7	핀란드	6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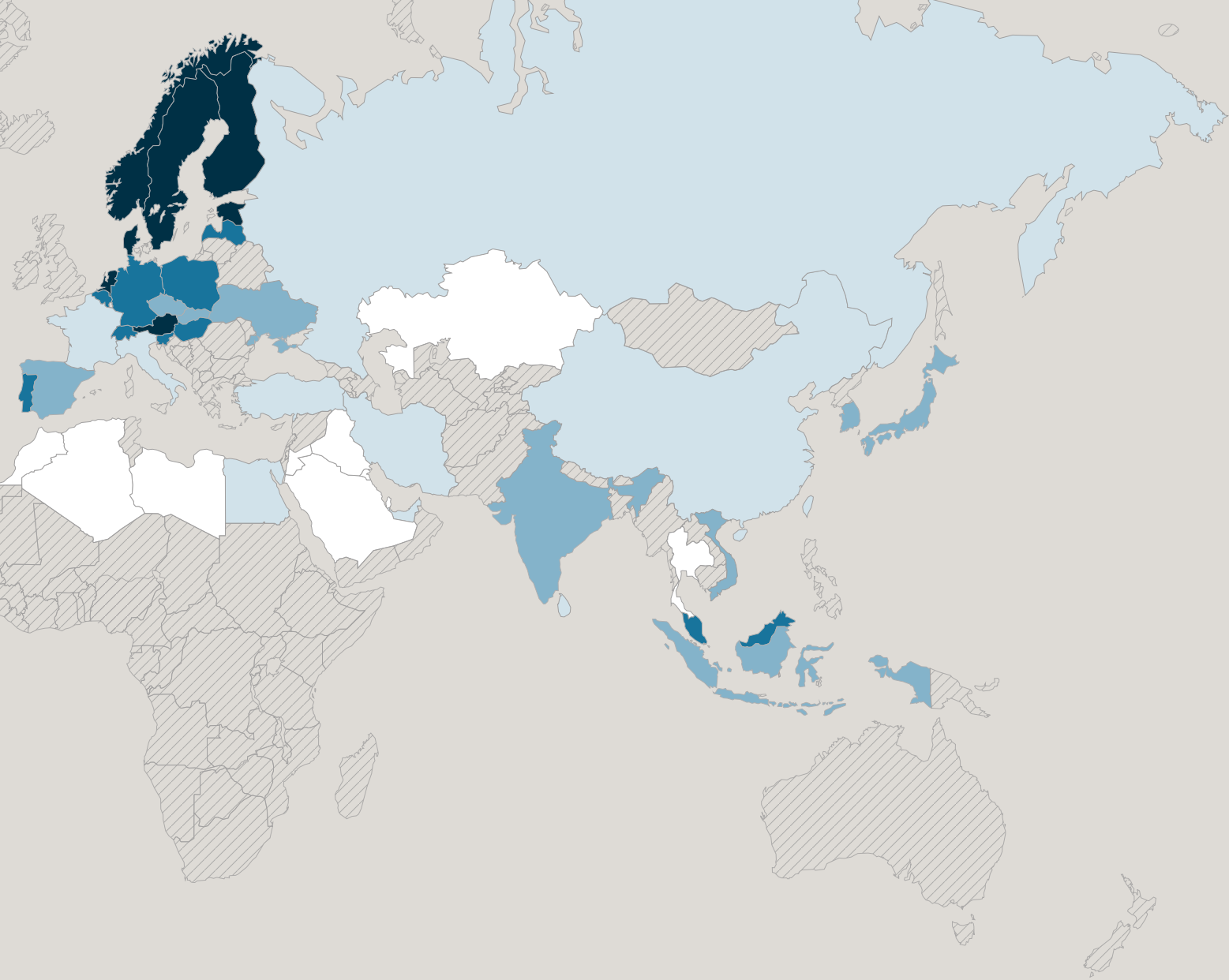
양호

랭킹	국가	EF EPI
8	폴란드	62.25
9	헝가리	60.41
10	슬로베니아	60.19
11	말레이시아	58.99
12	싱가포르*	58.92
13	벨기에	58.74
14	독일	58.47
15	라트비아	57.66
16	스위스	57.59
17	포르투갈	57.52

보통

랭킹	국가	EF EPI
18	슬로바키아	54.58
19	아르헨티나	54.43
20	체코 공화국	54.40
21	인도*	54.38
22	홍콩*	53.54
23	스페인	53.51
24	한국	53.46
25	인도네시아	53.44
26	일본	53.21
27	우크라이나	53.09
28	베트남	52.27

*영어가 공용어인 국가



미흡

랭킹	국가	EF EPI
29	우루과이	51.49
30	스리랑카	51.47
31	러시아	51.08
32	이탈리아	50.97
33	타이완	50.95
34	중국	50.77
35	프랑스	50.53
36	아랍에미리트	50.37
37	코스타리카	50.23
38	브라질	50.07
39	페루	49.96
40	멕시코	49.91
41	터키	49.52
42	이란	49.30
43	이집트	48.89

불량

랭킹	국가	EF EPI	랭킹	국가	EF EPI
44	칠레	48.20	59	사우디아라비아	41.19
45	모로코	47.71	60	이라크	38.16
46	콜롬비아	47.07			
47	쿠웨이트	46.97			
48	에콰도르	46.90			
49	베네수엘라	46.44			
50	요르단	46.44			
51	카타르	45.97			
52	과테말라	45.72			
53	엘살바도르	45.29			
54	리비아	44.65			
55	태국	44.44			
56	파나마	43.61			
57	카자흐스탄	43.47			
58	알제리	43.16			



제3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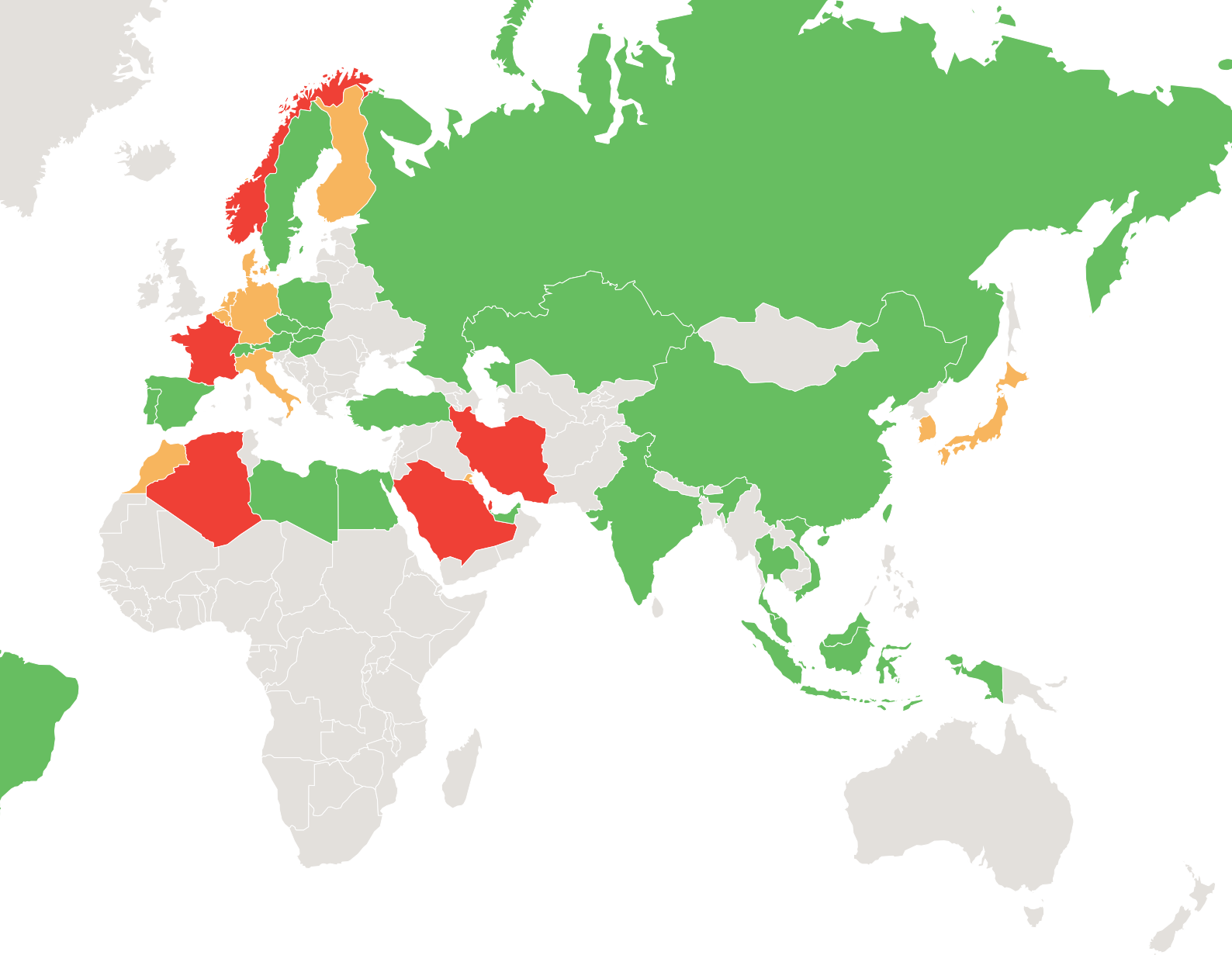
EF EPI 추세

EF는 국가별 영어능력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제1판과 제3판의 EF EPI 점수차를 계산했다. 제1판의 EF EPI 점수가 없는 국가는 제2판의 점수를 사용했다. 제1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2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제3판은 2012년의 시험 점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점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영어능력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올해 처음으로 EF EPI에 추가된 7개국은 추세 지도에서 제외되었다.

▲ 증가 추세

국가	추세	국가	추세
▲ 터키	+11.86	▲ 슬로바키아	+3.94
▲ 카자흐스탄	+11.73	▲ 포르투갈	+3.90
▲ 헝가리	+9.61	▲ 칠레	+3.57
▲ 인도네시아	+8.66	▲ 말레이시아	+3.45
▲ 베트남	+7.95	▲ 중국	+3.15
▲ 폴란드	+7.63	▲ 체코 공화국	+3.09
▲ 인도	+7.03	▲ 스위스	+2.99
▲ 러시아	+5.29	▲ 이집트	+2.97
▲ 페루	+5.25	▲ 브라질	+2.80
▲ 태국	+5.03	▲ 스웨덴	+2.43
▲ 스페인	+4.50	▲ 에콰도르	+2.36
▲ 아랍에미리트	+4.48	▲ 리비아	+2.12
▲ 콜롬비아	+4.30	▲ 타이완	+2.02
▲ 오스트리아	+4.08	▲ 베네수엘라	+2.01




↗↗ 큰 변화 없음

국가	추세	국가	추세
↗ 이탈리아	+1.92	↘ 한국	-0.73
↗ 독일	+1.83	↘ 홍콩	-0.90
↗ 벨기에	+1.51	↘ 일본	-0.96
↗ 핀란드	+1.38	↘ 덴마크	-1.43
↗ 코스타리카	+1.08	↘ 멕시코	-1.57
↗ 아르헨티나	+0.94	↘ 모로코	-1.69
↗ 싱가포르	+0.27	↘ 네덜란드	-1.74
↘ 파나마	-0.01	↘ 우루과이	-1.93
↘ 쿠웨이트	-0.04		

↘ 감소 추세

국가	추세
↘ 과테말라	-2.08
↘ 엘살바도르	-2.36
↘ 노르웨이	-2.49
↘ 프랑스	-2.63
↘ 카타르	-2.82
↘ 이란	-3.62
↘ 알제리	-3.97
↘ 사우디아라비아	-6.86





EF EPI 제3판 머리말

EF EPI 제3판에서는 총 60개의 국가 및 자치령의 EF EPI 순위를 매겼다 (제1판 44개국, 제2판 54개국).

EF EPI에 처음으로 추가된 7개국은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요르단, 이라크다. 도미니카 공화국, 시리아, 파키스탄 3개국은 자료가 불충분하여 제외되었다.

지난 6년간 (2007년-2012년) 새롭게 나타난 추세를 분석하였다.

EF EPI 제1판은 2007년부터 2009년, 제2판은 2009년부터 2011까지 각각3년 동안 기록된 자료를 사용했다. 두 개의 보고서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이번 판부터는 한 해의 자료만 사용하기로 했다. EF EPI가 연례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되면 매년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성인 75만 명이 EF 영어 시험을 치렀다. EF EPI 제3판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매긴 국가별 순위가 수록되었다. 또한, 성인 500만여 명으로부터 수집한 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 막대한 투자에 비해 미미한 성과

EF EPI Rank: #24



경미한 하락

한국의 EF EPI 점수는 0.73 하락하였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영어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때로 “전국민이 영어능력에 대한 강박관념”을 지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중국은 한국보다 인구가 27배나 많지만, 영어 사교육에 대한 투자는 한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국의 학생들은 유치원 시절부터 일주일에 몇 시간씩 영어 개인 교습을 받는다. 한 일간지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인은 학교 수업과 사교육 시간을 포함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평균 20,000시간을 영어 공부에 투자한다고 한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시간, 돈, 노력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지만 2007년과 2012년 사이 한국인의 영어능력 등급은 약간 하락하였다. 한국 성인의 영어능력은 보통 수준으로써 아시아 국가 중 5위를 기록했지만, 지난 6년간 한국인의 영어실력은 향상되지 않았다.

일련의 개혁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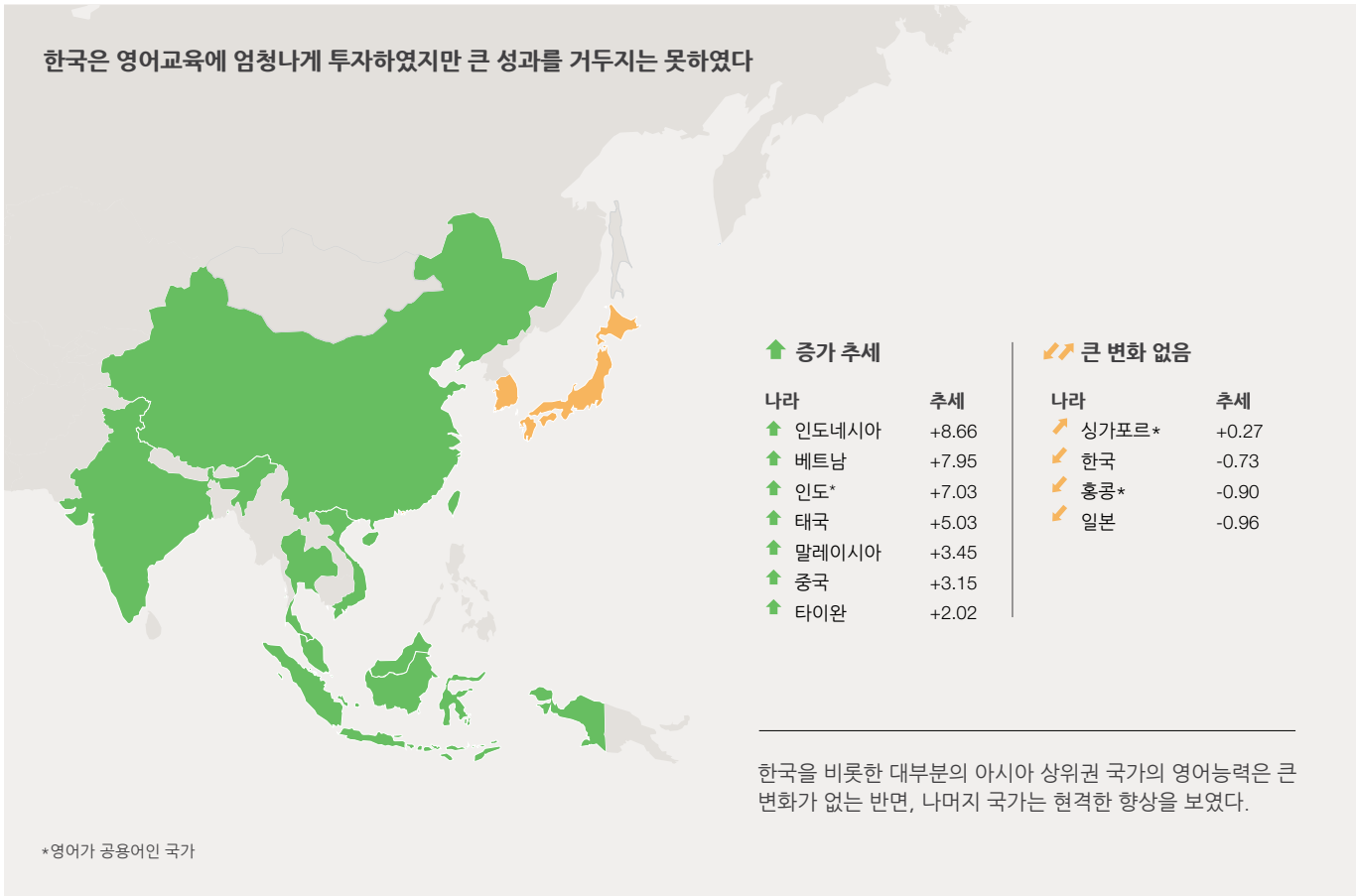
학생들의 영어실력, 특히 회화능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은 정책 입안자와 교육자들이 가장 고심하는 문제였고, 결국 영어교육 개혁은 정치적 핵심 사안이 되었다.

2008년, 영어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한 한국 대통령은 2010년부터는 모든 교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겠다는 상당히 과격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 계획은 전국의 교육자들과 학부모의 거센 반발로 금방 무산되었다. 그 대신 교육부는 영어 교사에게 연수를 받고, 새로 도입된 영어전용교사(TEE)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였다.

수천 명의 교사들이 6개월간의 집중 연수과정을 거쳤으며, 일부 교사는 TEE 연수를 받은 뒤 수업 중에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학생 중심의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TEFL 전문가와 TEE 교육자들은 자격증 발급 기준이 너무 낮고,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교사는 연수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TEE 교육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교사를 통과시키라는 압박을 받았으며 TEE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화여자 대학교의 신상근 교수는,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지만 TEE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코리아 헤럴드지에 밝혔다. 영어 교사를 교육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영어 교육 개혁의 핵심 요소이지만, 교사 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질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영어교육에 엄청나게 투자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원어민 영어 교사 제도의 변화

1995년부터 한국의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회화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 아래 영어권 국가의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였다. 원어민 영어 교사(NEST) 수는 첫 해 95명에서 2011년 8,798명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일부 도시에서는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대신 현지 교사의 영어 연수에 더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일반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

한국 언어교육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암기와 문법에만 너무 치중한다는 것이다. 기술적인 능력은 갖추고 졸업하지만 영어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은 여전히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난 4년간 약 2천6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을 개발하였다. 교육부는 첫째, 학부모의 학원비 지출을 절감하고, 둘째, 표현 능력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으로 재편성하며, 셋째, TOEFL, TOEIC과 같은 외국 시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만들었다.

애초에 교육부는 수능 외국어 영역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외국어 영역 시험은 독해와 듣기만 평가하지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는 말하기와 쓰기도 포함된다. 한국 교사들에 따르면, 수능 시험은 오직 수동적인 영어능력만 평가하기 때문에 교실에서 의사소통중심교수법(CLT)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201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도입되면 의사소통 능력에 집중하는 교육 시간이 늘어나 학생들의 말하기 및 쓰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 학생과 교사가 새 시험에 대비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결국 교육부는 올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수능시험에 편입되지는 않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며, 용도는 향후 정해질 거라고 밝혔다.

한국은 영어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성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학생들에게 반복 학습과 암기만 강요하는 기존의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한, 영어능력이 확연하게 좋아질 거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정부와 교육개혁자들은 제한적인 결과이기는 하지만 영어 교육 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 한국의 영어교육을 전면 개편하려면, 훨씬 더 혁신적인 해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국인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영어 학습에 평균 20,000 시간을 할애한다.

EF EPI 상관관계

지난 6년간, EF는 한 국가의 영어 숙련도와 사회, 경제적 지표들 간의 강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국적기업 사원 중 절반이 회사에서 영어를 매일 사용한다고 한다.

외국어로써 영어의 중요성

오래전부터 제2외국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엘리트층의 특권이였다. 대영제국의 팽창과 세계대전 후 미국 경제력의 확산으로 불어를 대신해 영어가 엘리트층의 언어가 되었다. 하지만 지난 20년에 걸친 세계화, 현대화, 도시화 및 인터넷의 발달은 영어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와, 이제 영어는 더 이상 엘리트층의 전유물이나 경제적인 특권이 아니다. 지난 이백년동안 읽고 쓰는 능력이 엘리트층의 특권에서 시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능력으로 탈바꿈했듯이, 영어는 오늘날 모든 노동인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 되었다.

세계화가 영어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Global English의 조사에 따르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다국적기업 직원 2만 6천 명 중 55%가 직장에서 매일 영어를 사용한다고 답하였으며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직원은 4%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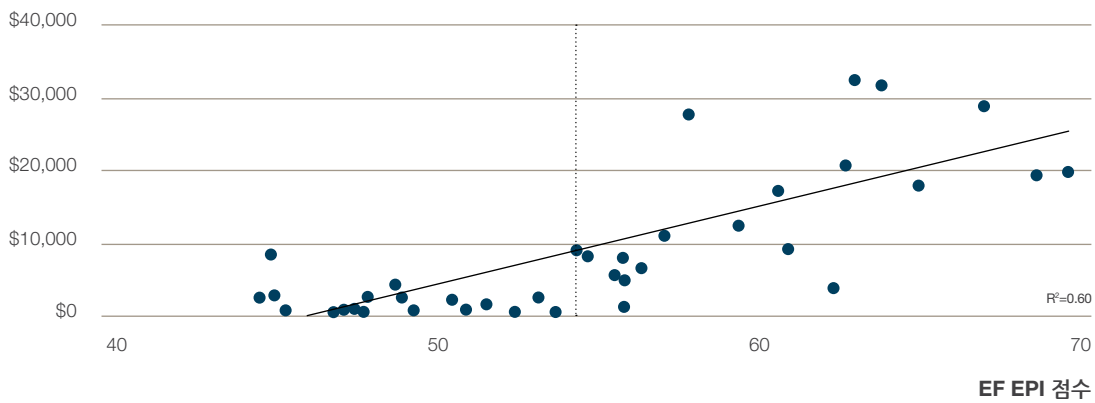
영어는 국제 비즈니스에서는 물론, 서로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되었다. 심지어 여러가지 지역적, 부족적인 언어가 존재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공통 소통 수단이 영어인 경우도 있다. 이렇듯 사실상 공용어로 인식되는 영어의 지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국민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는 영어가 필수적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를 가진 국가들은 모두 영어를 잘한다. 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국가라고 해서 모두 수출 중심의 경제라는 뜻은 아니다. 영어 능력이 높은 몇몇 나라는 수출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는 영어는 단지 수출 중심 경제의 필요조건 중 하나일 뿐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영어 능력이 있으면 기업혁신, 고객과의 소통, 인재 채용에 큰 힘이 되고 수출 환경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인프라, 정부규제, 세금, 천연자원 등 높은 수출량과 연관된 다른 요소들은 영어 능력과 무관하다.



인당 수출량*



영어는 수출을 촉진시킨다

국민의 영어 능력과 1인당 수출량 사이의 관계는 두가지로 나뉜다. 영어 능력이 미흡 등급이거나 불량 등급인 나라는 전혀 차이없이 모두 1인당 수출량이 적다. 예외가 있다면 원유수출이 주요 국가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뿐이다. 그러나, 영어능력이 보통 등급 이상인 나라는 영어능력의 향상과 수출량 증가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다.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최소한의 영어능력은 필수다.

*자료출처: CIA World Factbook, Exports per Capita, 2011

영어와 경제발전

영어 능력과 총국민소득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개인 수익력과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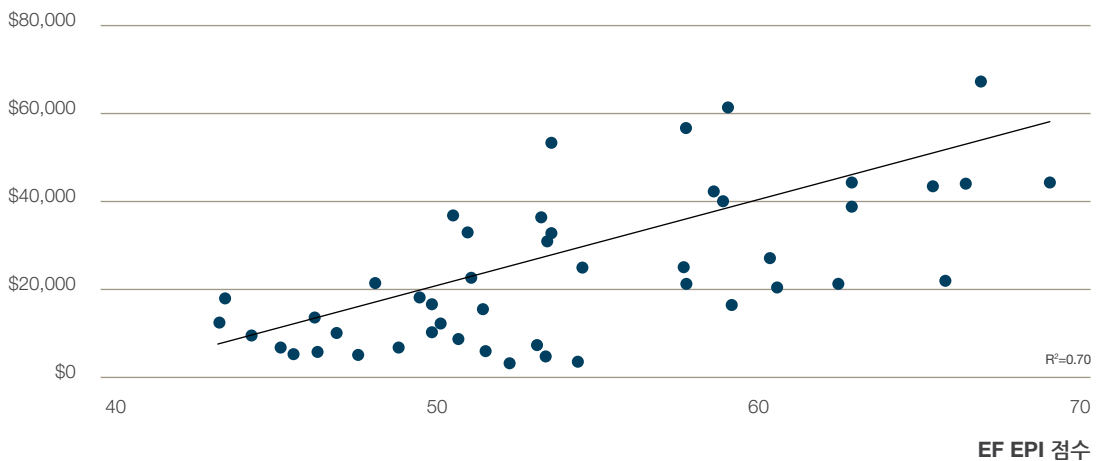
외교, 번역 등의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영어 능력이 필수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분야에서 영어가 필요하다. 전세계의 인사관계자들에 따르면 영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면으로는 비슷한 능력을 가졌으나 영어능력이 없는 다른 후보자보다 약 30-50% 이상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급여가 높은 한편, 영어 능력이 뒤떨어지는 사람은 승진의 기회를 놓치기도 쉽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임원의 70%가 직원들이 회사의 경영방침을 이해하고 따라가려면 영어를 알아야 한다고 답했고, 임원의 25%는 전체 직원 중 영어 능력을 갖춘 직원이 50% 이상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렇듯 영어는 취업에 필수 조건이 되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영어는 필수다

미국이나 영국 회사가 자기 사업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아웃소싱할 때 비용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그나라 국민의 교육수준과 영어능력이다. 선진국의 아웃소싱 붐에 동참하려는 개발도상국은 영어 능력이 뛰어난 졸업생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수출량을 증가시키고 나라 경제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것을 인지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 수출이 늘면 중산층이 많아져 소비량이 증가하고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 자연히, 오늘날 여러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초등학교 이전부터 영어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가르치며 다른 과목 수업도 영어로 진행하는 등 영어가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인당 총국민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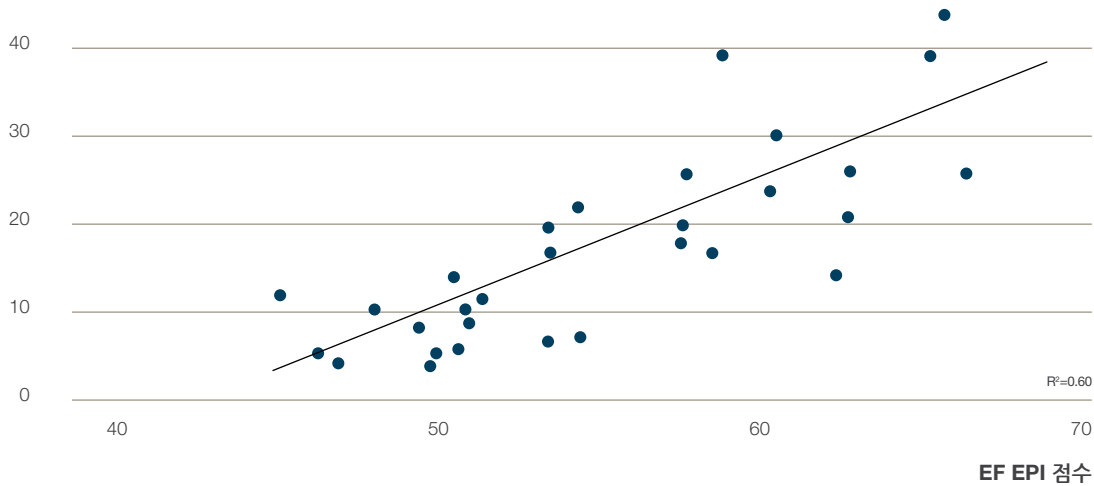


영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소득이 높다
 영어능력과 국민소득은 밀접한 선순환 관계에 있다. 영어 능력이 높을수록 소득도 높아지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다시 정부와 개인들이 영어교육에 투자할 여유가 많아진다. 이러한 선순환 관계는 미시적인 수준에서도 나타난다. 영어 실력이 좋아지면 개개인은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더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자료출처: United Nations, GNI per capita PPP(\$), 2012



서비스 무역 (GDP 비율)*



국제적인 서비스업이 발달한 경제는 영어 능력이 우수하다

나라 경제가 제조업과 1차산업에 집중된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콜센터나 IT 지원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용역을 선진국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과 영어능력의 밀접한 상관관계로 인해, 이러한 개발도상국이 국민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투자하면 나라 경제에 구조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자료출처: World Bank, 2012. GDP 가치로 나눈 서비스업 수출입 총계. 미국달러 기준

영어로 비즈니스하기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영어를 회사 공식언어로 채택하고 있다.

회사 공식언어로서의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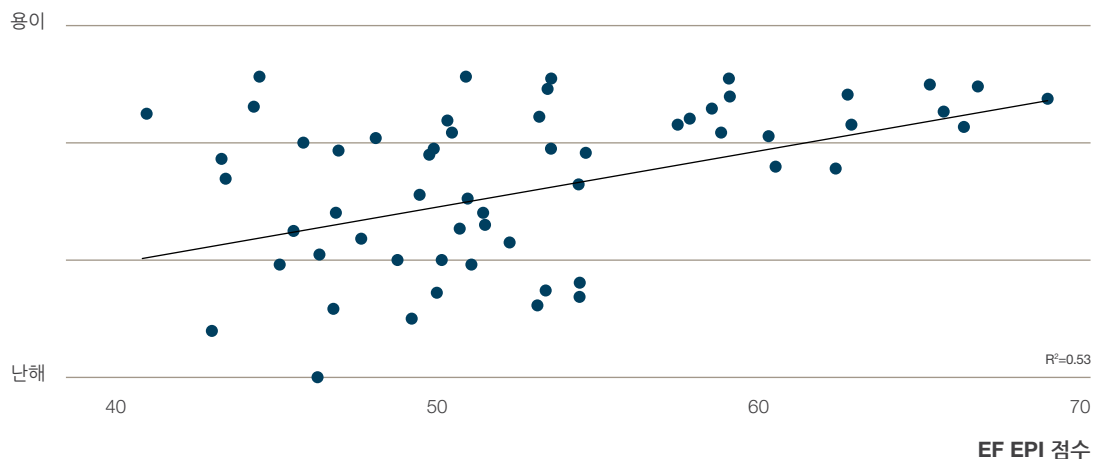
흔히 영어를 비즈니스 언어라고 한다. 비즈니스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비즈니스계에 있어서 영어가 필수인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영어를 회사 공식언어로 채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성장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Nokia, SAP, Samsung, Aventis, Renault 와 같은 대기업에서는 이미 영어를 회사 공식언어로 채택하였다.

2010년, 일본 최대의 온라인 마켓인 Rakuten 이 영어를 회사 공식언어로 채택하였다. 하버드 대학 Tsedal Neely 교수는 사례 연구를 통해 이런 야심찬 변화의 목표와 과제를 분석하였다. Rakuten 의 분명한 목표는 국제무대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회사 내 일과 자원을 분배함에 있어 언어장벽때문에 생기는

병목현상을 완화하고, 해외 인수합병 후의 회사간 통합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다. 한편,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정책을 회사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과 직원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빠른 시간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과 직원들의 영어 실력이 아직 저조한 기간동안 생산성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Rakuten 이 영어를 회사 공식 언어로 바뀌어나가는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런 변화를 받아 들여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된 임직원도 많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이런 변화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그렇기는 해도 수많은 기업 임원은 영어가 회사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임직원들에게 매일 일터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또 그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다.

비지니스를 하기 쉬운 정도 (점수)*



영어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더 쉽다

World Bank와 IFC의 비즈니스 용이도 지수는 세계 각국의 규제환경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얼마나 좋은지를 비교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다.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나라의 경우 영어 실력이 좋을 수록 비즈니스를 하기가 쉽다. 이는 높은 수준의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나라들이 친취적인 사고와 기업이 정신을 기르도록 장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기업가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싶은 국가라면 영어 실력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데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자료출처: World Bank and IFC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2012

영어와 삶의 질

기본적인 능력으로서의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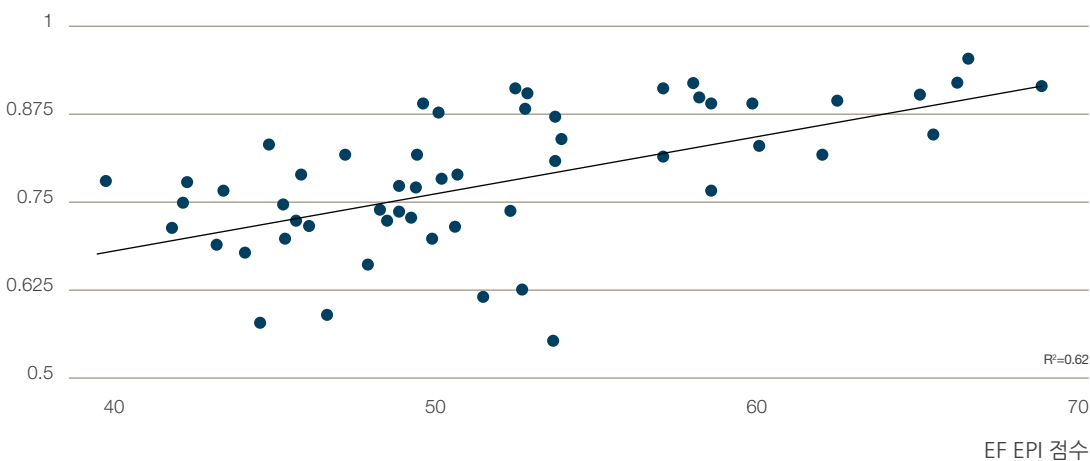
영어능력은 국가 경제력 발전의 기본 요소이며, 인류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깨끗한 물, 의료시설, 교육시설, 치안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영어 교육이 불가능하다. 생존 자체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가 충분히 안정되고 일상생활이 규칙적이 되었을때 비로소 영어교육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능력을 주요 기초 과목 다음에 오는 ‘보너스’ 능력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취업과 전문 분야에서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선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영어가 깨끗한 물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과연 방정식보다 덜 중요한가?

영어능력을 사립학교 혹은 고등교육에서만 제공되는 특권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고서는 오늘날 영어가 기본적 필수 자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어를 국어나 산수만큼 기본적인 능력으로 인식해 교육하고 테스트하도록 해야한다. 지난 15년 동안 영어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져왔는지를 생각해볼 때,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취업할 나이가 되면 영어는 더욱 필수적인 자격 요건이 되어 있을 것이다.

영어를 사치로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인간 개발 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우수한 영어 능력과 높은 삶의 질

인간 개발 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HDI) 는 교육, 평균수명, 문맹률, 생활수준 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HDI와 EF EPI 사이에는 정관계가 존재하지만,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그 상관관계에는 한계점이 있다. 영어능력이 미흡 등급이거나 불량 등급인 나라에서는 다양한 개발지수를 보이지만, 보통 등급이상의 영어 능력 점수를 보인 나라들 중에 '매우 높은 인간 개발 (Very High Human Development) 이하의 지수를 기록한 나라는 없었다.

*자료 출처: 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Report, 2012



결론

글로벌 경제에서는 영어로 소통하는 능력이 필수다.

EF 자료는 영어능력이 1인당 국민소득 및 인간개발지수 같은 사회적, 경제적 지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1개 국가를 집중 분석한 결과, 세계 각지의 정부 및 비정부 관계자들이 영어능력과 건실한 경제와의 상관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각국은 자국의 노동인력이 영어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재원을 쏟아 부었지만, 모든 정책과 해법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다.

60개 국가 및 자치령의 영어능력 수준을 평가한 EF EPI는 성인의 영어능력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 EF가 지난 6년간 500만여 명의 성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60개 국가 및 자치령의 영어능력 수준을 평가한 EF EPI는 성인의 영어능력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 EF가 지난 6년간 500만여 명의 성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 영어교육은 현명하게 투자했을 때만 성과가 있다. 거액의 투자가 늘 승리하는 법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 기업, 학부모, 전문가가 영어교육 프로그램 혹은 정책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투자해야 한다.
- 학교는 영어교육의 기반이다. 학생이나 성인을 막론하고 영어 개인 교습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영어 공부를 하지 않는다. 모든 노동인력이 실제 업무에서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주안점을 둔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교사 훈련이 성공의 관건이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중점을 두어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을 평가하려면, 영어 교사들이 구어체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영어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교과목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사들이 영어 연수 및 수업 방법에 대해 연수를 받아야 한다.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올바른 교사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평가 방법에 따라 수업방식도 달라진다. 국가 시험, 특히 중대한 고등학교 시험, 대학 입학 및 졸업 시험은 능숙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인생이 걸린 중대한 시험에서 오직 문법과 독해만 평가한다면, 교사와 학생 모두 그 두 가지 능력만 키우는데 집중할 것이다.

- 개인 투자를 최대한 활용하라. 개인이 영어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는, 학교 시스템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어실력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요구된다. 정부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품질을 평가하고, 성인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국가표준을 설정하고, 전문 영어과정 수강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인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인터넷 덕분에 외딴 지역에 사는 개인들도 양질의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영어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어를 말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다른 교과목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대학교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면, 재학생들의 영어능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외국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다. 직장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전문직 종사자들도 영어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을 받으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영어로 된 TV프로그램과 영화를 더빙처리하기 보다는 자막을 넣으면 교실에서만 배우던 영어를 실생활에서도 배울 수 있다.

개인, 교육자,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시도한 방식을 평가함으로써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발견하고 공통적인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영어교육에 있어 누구에게나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해결책은 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최선의 해법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성인 영어능력 변화 추세에 대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EF가 이러한 최선의 해법을 선별하는데 기여했기를 바란다. EF EPI가 촉매제가 되어 영어교육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영어가 발상과 무역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도구임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했기를 바란다.

누구에게나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해결책은 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최선의 해법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EF EPI 에 대해서

방법론

EF English Proficiency Index는 매년 수십만 명이 치르는 2종류의 EF 영어시험을 통해 각국 성인의 평균 영어능력을 평가한다. 첫번째 시험은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에서 치를 수 있고, 또 다른 시험은 학생들이 EF영어코스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으로 치르는 시험이다. 2가지 시험 모두 문법, 어휘력, 읽기, 듣기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누구나 인터넷으로 응시 할 수 있는 시험은 30문제로 된 '적응적' 시험으로 문제의 정답을 맞혔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지는 방식의 시험이다. 다른 시험은 70문항의 일반적인 시험이다. 모든 점수는 EF 코스 수준에 맞춰 채점된다. 모든 시험은 학생이 자기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치르게 된다.

시험 결과에 따라 자격증이 발급되거나 입학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이 시험을 위해 별도의 공부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시험 대상

EF EPI 제3판은 2012년 시험에 응시한 약 75만 명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되었다. 400명 이상이 시험에 응시한 국가만을 이 지표에 포함시키고 전체 응시자의 숫자와 관계없이 2가지 시험 중 하나라도 응시자수가 100명에 못 미친 국가는 제외한 결과 총 60개의 국가 및 자치령이 포함되었다.

각 시험의 응시자들은 자발적으로 참가한 것이기 때문에 응시자들이 해당국가의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는 보장은 없다. 자신의 영어 능력에 만족하고 자신 있는 사람들은 영어수업을 받을 의향이 없을 터이고, 영어를 배우고 싶거나 자신의 영어 능력이 궁금한 사람만이 이 시험에 참가했을 것이기 때문에 영어능력지수가 전체 인구의 영어능력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는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는 사람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으로 시험대상에서 배제된다. 자연히, 인터넷 사용이 적은 나라는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동 배제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영어능력지수가 전체 인구의 수준보다 높게 왜곡되었을 수도 있다.

점수 계산법

각국의 EF EPI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전체 문항 수 대비 정답 비율을 산출해 각 시험점수를 표준화하였다. 그런 다음 2가지 시험의 평균을 산출했는데 이 때 2가지 시험의 가중치는 동일하게 부여하였다.

이 점수를 바탕으로 각국의 영어능력 등급이 결정되었다. 등급에 따라 비슷한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각 등급은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CEFR) 와 EF 프로그램 레벨에 상응한다. 영어능력 우수등급은 CEFR B2 레벨과 동등하고, 양호, 보통, 미흡 등급은 모두 CEFR B1 레벨과 같은데 각각의 레벨에는 그에 상응하는 EF 코스별 레벨이 있다. 불량 등급은 CEFR A2 레벨과 같다. 각 등급별 영어사용자의 능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F Education First

EF Education First (www.ef.com)는 1965년 언어적, 문화적, 지리적 장벽을 허문다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EF는 외국어교육, 문화교류, 학위과정, 수학여행 등을 전문으로 하며, 현재 50여 개국에서 460여 개의 직영학교와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공식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활동했던 EF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공식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EF는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www.ef.com/epi)를 발표하고 있다.

CEFR 레벨과 설명서

능숙한 영어 사용자

- C2** 읽고 들은 모든것을 쉽게 이해한다. 다양한 채널에서 읽고 들은 정보를 요약하거나 논리를 재구성하고, 또 일관성 있는 설명도 할 수 있다. 미리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미묘한 의미의 차이도 구별하여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다.
- C1** 길고 어려운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함축적인 표현들도 인식할 수 있다. 표현에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상황에 맞춰 사회적, 문학적, 전문적인 언어구사를 할 수 있다. 복잡한 주제에도 적절한 언어의 패턴, 접속어, 연결어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독립적인 영어 사용자

- B2**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에 관한 복잡한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어느정도 유창함과 자연스러움이 있어 별 막힘없이 원어민과 대화가 가능하다. 다양한 주제에 관해 뚜렷하고 자세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일정한 주제에 대한 관점을 여러 장단점을 열거하며 표명할 수 있다.
- B1** 직장, 학교, 여가생활 등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주제의 핵심을 이해한다. 여행중 일때 일어나는 대부분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익숙하거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에 관련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경험, 사건, 꿈, 희망, 의견, 계획 등을 묘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이나 계획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간단하게 덧붙일 수 있다.

기본 영어 사용자

- A2** 자신과 가장 밀접한 주제 (아주 기본적인 개인신상정보, 가족, 쇼핑, 지리, 직업)에 관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이해한다. 잘 알고 있거나 자주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간단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간단한 문장으로 개인신상정보, 현재 상황, 사건, 급히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A1** 구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문구와 매일 사용되는 일상적인 표현을 이해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 소개를 할 수 있고 사는 장소, 아는 사람, 소지품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대방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준다면 간단한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하다.

Council of Europe 인용구

2012년 EF EPI에 포함된 국가는 모두 A2에서 B2사이의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최하 수준인 A1이나 최고 수준인 C1과 C2에 해당되는 나라는 없었다.

EF EPI 국가별 순위

지난 6년간의 영어능력 변화 확인

EF EPI 제1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2판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의 시험 자료를 사용하였고, 제3판은 2012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가	EF EPI 제1판 점수	EF EPI 제3판 점수	점수 변화
알제리	47.13*	43.16	-3.97
아르헨티나	53.49	54.43	+0.94
오스트리아	58.58	62.66	+4.08
벨기에	57.23	58.74	+1.51
브라질	47.27	50.07	+2.80
칠레	44.36	48.20	+3.57
중국	47.62	50.77	+3.15
콜롬비아	42.77	47.07	+4.30
코스타리카	49.15	50.23	+1.08
체코 공화국	51.31	54.40	+3.09
덴마크	66.58	65.15	-1.43
에콰도르	44.54	46.90	+2.36
이집트	45.92*	48.89	+2.97
엘살바도르	47.65	45.29	-2.36
에스토니아	—	65.55	올해 신규 추가
핀란드	61.25	62.23	+1.38
프랑스	53.16	50.53	-2.63
독일	56.64	58.47	+1.83
과테말라	47.80	45.72	-2.08
홍콩	54.44	53.54	-0.90
헝가리	50.80	60.41	+9.61
인도	47.35	54.38	+7.03
인도네시아	44.78	53.44	+8.66
이란	52.92*	49.30	-3.62
이라크	—	38.16	올해 신규 추가
이탈리아	49.05	50.97	+1.92
일본	54.17	53.21	-0.96
요르단	—	46.44	올해 신규 추가
카자흐스탄	31.74	43.47	+11.73
쿠웨이트	47.01*	46.97	-0.04

국가	EF EPI 제1판 점수	EF EPI 제3판 점수	점수 변화
라트비아	—	57.66	올해 신규 추가
리비아	42.53*	44.65	+2.12
말레이시아	55.54	58.99	+3.45
멕시코	51.48	49.91	-1.57
모로코	49.40*	47.71	-1.69
네덜란드	67.93	66.19	-1.74
노르웨이	69.09	66.60	-2.49
파나마	43.62	43.61	-0.01
페루	44.71	49.96	+5.25
폴란드	54.62	62.25	+7.63
포르투갈	53.62	57.52	+3.90
카타르	48.79*	45.97	-2.82
러시아	45.79	51.08	+5.29
사우디아라비아	48.05	41.19	-6.86
싱가포르	58.65*	58.92	+0.27
슬로바키아	50.64	54.58	+3.94
슬로베니아	—	60.19	올해 신규 추가
한국	54.19	53.46	-0.73
스페인	49.01	53.51	+4.50
스리랑카	—	51.47	올해 신규 추가
스웨덴	66.26	68.69	+2.43
스위스	54.60	57.59	+2.99
타이완	48.93	50.95	+2.02
태국	39.41	44.44	+5.03
터키	37.66	49.52	+11.86
우크라이나	—	53.09	올해 신규 추가
아랍에미리트	45.53*	50.73	+4.84
우루과이	53.42*	51.49	-1.93
베네수엘라	44.43	46.44	+2.01
베트남	44.32	52.27	+7.95

*해당 국가가 EF EPI 제1판에 없었기 때문에 EF EPI 제2판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참조

Baty, Phil. "Russia Must Globalize Its Universities." *The Moscow Times*.

15 May 2013.

<http://www.themoscowtimes.com/opinion/article/russia-must-globalize-its-universities/480009.html>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2013.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index.html>

Comin, Alvaro A., and Rogério Barbosa. "From Work to School: Higher Education Expansion and Occupational Change in Brazil." Warwick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Dec 2011.

http://www2.warwick.ac.uk/fac/soc/ier/research/glmf/heeer/from_work_to_school_higher_education_and_labour_markets_in_brazi_alvaro.pdf

Consejería de Educación. "Datos y Cifras de la Educación." Comunidad de Madrid. 2011.

http://www.madrid.org/cs/Satellite?blobcol=urldata&blobheader=application%2Fpdf&blobheadername1=Content-Disposition&blobheadervalue1=file%3DDATOS+Y+CIFRAS+2010_2011.pdf&blobkey=id&blobtable=MungoBlobs&blobwhere=1271936872331&ssbinary=true

Council of Europ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Foreign Affairs Office of the People's Government of Beijing Municipality.

"Capital International Language Environment Construction Work Plan (2011-2015)." Chinese Government Public Information Online—Beijing. 11 Apr 2011.

http://govinfo.nlc.gov.cn/bjz/xxgk/bjszfvb/201106/t20110627_865940.html?classid=409;423

Frumina, Elena, and Richard West. *Internationalisation of Russian Higher Education: The English Language Dimension*.

Moscow: British Council, 2012.

"'Go Out!'—Germany Encourages Its Students to Go Abroad."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2013.

<http://chronicle.com/academicDestinationArticle/How-Germany-Promotes-Study/62/>

Joon, Jang. "Reforming Korea's English Education." *The Korean Times*. 19 Dec 2012.

http://www.koreatimes.co.kr/www/news/opinion/2013/08/162_127261.html

Katsomitros, Alex. "Higher Education Reforms and Economic Crisis in Italy and Spain." *Borderless Report June 2012*. The Observatory on Borderless Higher Education. Jun 2012.

http://www.obhe.ac.uk/newsletters/borderless_report_june_2012/higher_education_reforms_italy_spain

Kwai, Sang Lee, and Leung Wai Mun. "The Status of Cantonese in the Education Policy of Hong Kong." *Multilingual Education*. 2012.

<http://www.multilingual-education.com/content/pdf/2191-5059-2-2.pdf>

McKay, Sandra L. *Teaching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Rethinking Goals and Approach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France. "Note d'information 12-05." L' évolution des compétences en langues des élèves en fin de collège de 2004 à 2010. Apr 2012.

http://cache.media.education.gouv.fr/file/2012/17/0/DEPP-NI-2012-05-evolution-competences-langues-eleves-fin-college_214170.pdf

Ministry of Education, Brazil. "Two Million Students Now Have Access to the English Without Borders Program." Portal Brasil. 6 Mar 2013.

<http://www.brasil.gov.br/news/history/2013/03/06/two-million-students-now-have-access-to-the-english-without-borders-program>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y Statistical Profiles." *OECD Stat Extracts*. 2012.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SP2012>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exico—Country Note." *Education at a Glance 2012: OECD Indicators*. 2012.

<http://www.oecd.org/edu/EAG2012%20-%20Country%20note%20-%20Mexico.pdf>

Park, Jin-Kyu. "'English Fever' in South Korea: Its History and Symptoms." *English Today* 25.01 (Mar 2009): 50-57.

Poon, Anita Y.K. "Language Policy of Hong Kong: Its Impact on Language Education and Language Use in Post-Handover Hong Kong." *Journal of Taiwan Normal University: Humanities & Social Sciences* 49.1 (2004): 53-74.

Tabuchi, Hiroko. "Young and Global Need Not Apply in Japan." *The New York Times*. 29 May 2012.

http://www.nytimes.com/2012/05/30/business/global/as-global-rivals-gain-ground-corporate-japan-clings-to-cautious-ways.html?_r=1&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Education For All by 2015 Global Monitoring Repo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제작에 도움을 준 Kate Bell, Adam Bickelman, Ming Chen, Pei-Jeane Chen, Ku Chung, Charlotta Falk, Kit Hoang, Britt Hult, Heinz Kerschbaum, Dr. Christopher McCormick, and Minh N. Tran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문의사항은 www.ef.com/epi 를 방문하시거나 +82 6144 964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VIEWS OF THE EF EPI:

The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which I read is most helpful. I've never seen this particular tranche of information compiled in one place. It's a very effective summary of the next stage in English language development, statistically sound and well directed.

Lord Melvyn Bragg

Broadcaster and Author of *The Adventure of English: The Biography of a Language*

As English is becoming an essential skill for the entire workforce globally, it is central to a country's potential for economic success and social prosperity. To appreciate the impact of the English proficiency of a country's population on economy and society and understand which educational policies are effective, we need measures of English proficiency. The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is such a measure that stands out for its focus on communicative fluency. The report also uncovers an unmistakable link between English proficiency and crucial socio-economic factors, proving the relevance of this tool as a vital source of information for educators and policymakers worldwide.

Dr. Dora Alexopoulou

Senior Research Associate of the Department of Theoretical and Applied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English is a global language, so the EF EPI serves not only as an English Proficiency Index, but also as a globalization index, covering language, technology, commerce, and culture. In order to move up in this index, a country may have to become more open to global forces, or improve education in general and English instruction in particular.

Dr. Cheng Zhaoxiang

Professor and Dean of the School of Foreign Languages, Peking University (Beida)
Member, China's National Committee for English Education

Measuring and assessing the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in different countries is a Herculean task. The EF EPI provides an invaluable tool that helps educators and researchers improve EFL teaching and through it international communication.

Dr. Svetlana Ter-Minasova

Professor Emeritus, Moscow State University
Founder and President, Russian National Society for English Language Teachers

Please visit www.ef.com/epi to download different editions of the EF EPI.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1st Edition (2011)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2nd Edition (2012)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3rd Edition (2013)

EF EPI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Contact Us

Visit www.ef.com/eji or telephone +852 2111 2370

